

그대의 상징... 명함

그 역사를 아십니까?

■ 또 다른 당신의 얼굴 - 명함

당신의 얼굴로 기억되는 또 다른 얼굴 명함. 당신이 무심코 견낸 명함 한장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이 평가될 수도 있으니 좋게 기억되게 만들고 볼 것이다.

지난 97년에도 잘못 견낸 한 장의 명함 때문에 나라가 시끌벅적한 일이 있었으니 이른바 '남조선 명함 파동'이다.

1997년 8월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석현 전의원은 미국에서 '韓國(南朝鮮) 國會議員'으로 표기된 명함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남조선이라는 글귀가 문제 됐다. 결국 이전의원의 명함은 소속정당을 탈당하고 이후 낙선하는 결정적인 빌미가 됐으나 쉽게 제작한 명함 하나가 부른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다.

■ 명함의 기원

명함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알리는 도구로 쓰인다. 하지만 명함 사용의 시초로 추정되는 중국에서는 그 사용

용도가 달랐다.

중국인들은 아는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 상대방이 부제중이면 이름을 적어 남겨두었는데 이를 명함으로 간주하자면 인류 최초의 명함은 기원전 2세기로 올라간다. 채륜이 종이를 발명한 시점이 AD105년임을 감안하면 중국인들이 사용한 그것이 오늘날 명함의 용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도 중국과 비슷한 용도로 16세기경 이름을 적은 쪽지를 사용했으며, 이와 용도가 다르지만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부터 명함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명함 사용자는 한국인 최초의 유학생인 유길준으로 현재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세일럼 시 피바디에섹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국내에 보관된 최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명함은 연세대 동은의학박물관에 보관된 민영익의 명함이다.

연세대 동은의학박물관(관장 박형우)에 보관 되어있는 민영익이 사용한 명함은 한지가 아닌 미국산 종이로 근



◆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각종 명함

래의 명함 크기와 비슷한 가로 5.5cm 세로 9cm의 세로형이었으며, 한문자 필과 상단에 'prince, Min you ik, corean ambassador to US'라고 연필로 쓰여져 있다.

■ 명함의 구성

명함의 정해진 크기는 없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명함이 나오지만 가로(세로)90mm, 세로(가로)50mm가 기본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로로 된 종이에 가로 글자를 새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지만, 세로쓰기의 형태가 주종을 이룰 때는 지금보다 세로 명함의 빈도가 훨씬 높았으며, 지금도 정부 기관



◆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명함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영익의 명함.

이나 산하단체 혹은 세로쓰기에 익숙한 이들은 세로쓰기를 고집하고 있다.

명함의 서체로는 헤드라인체, 태고딕체, 고딕체 등이 주로 쓰이고 있으나 서체가 2000여종이 넘어서고 있고 전통적인 제작방식에서 벗어나 오프셋 인쇄가 주를 이루는 근래에는 서체에 서만큼은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다. 명함 제작에 쓰이는 종이는 아트지, 스노우아트지, 그레이스지, 유포지 등이 주종을 이루지만 재생지를 쓰기도 한다. 종이 역시 서체만큼이나 자유롭다.

■ 명함제작의 변천

근대의 명함 인쇄는 활자조판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컬러가 아닌 단도로 이루어진 명함은 90년대 이후 대기업의 C.I(Corporate Identification) 작업으로 회사 특유의 컬러로 새겨진 깨끗한 명함이 필요해지면서 컬러 오프셋 인쇄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대기업의 C.I 작업은 명함 인쇄기교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됐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이미지 통일을 위해 명함 하나에도 특정 색을 지정해 주었다. 명함인쇄가 여타의 상업

인쇄물로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컴퓨터의 발달은 명함인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하나는 인쇄사가 아닌 집에서 명함제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기획 능력만 있으면 간단한 명함은 집에서 만들어도 될 만큼 컴퓨터는 발전해 있다.

■ 명함의 종류

일반적인 명함은 회사와 관련된 내용만을 담고 있다. 회사 이름과 회사 전화번호, 회사에서 하는 일, 자기가 맡은 역할 등등이 내용이다.

하지만 일반화를 거부하는 다양한 명함들이 있다.

청소년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명함은 팬클럽 명함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연예인을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된 명함은 자기를 소개하기 위한 명함이 아닌 연예인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명함이다. 일반적인 명함이 회사를 알리기 위한 명함이라면 프리랜서들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명함을 제작한다. 프리랜서들이 활용하는 명함에는 캐릭터나 캐리커처가 그

려진 명함이 주류를 이룬다. 이미지 하나로 자신을 쉽게 알리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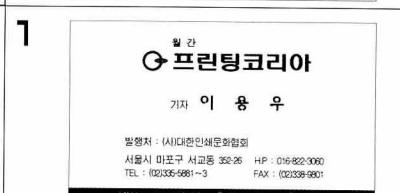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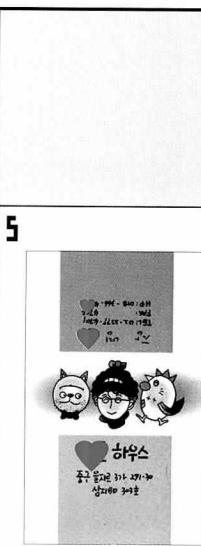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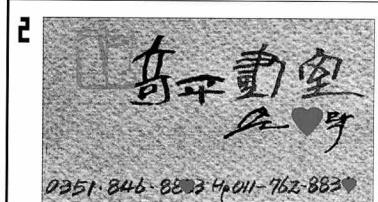
글이나 그림에 재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쓴 글씨로 명함을 제작한다. 필요한 명함 틀을 정해놓고 자필로 글을 쓴 다음 스캔을 받으면 명함 원고가 완성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 향기 나는 명함을 쓰는 경우도 있다. 종이와 잉크가 향기를 내는 재료로 쓰이는데 자신의 명함에 향수를 뿌리는 방법도 간단하게 향수 명함을 제작하는 방법이다.

자신이 특별하게 기억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순금명함을 제작하기도 한다.

국내 3~4개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순금명함 제작 서비스는 순금 포장 위에 라미네이팅 처리를 하고 여기에 글씨는 새기는 방법으로 제작된다. 제작 수량에 따라 장당 1만원부터 6천원 까지 가격 단위가 다양하다.

시각장애인과 관계를 맺는 이들은 점자가 새겨진 점자명함을 이용한다. 각 지역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제작되는 명함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종이의 뒷면에 힘을 가해서 종이의 앞면에 점자를 새기기도 하지만 촛농의 효



1. 영업용 명함
2. 자필명함
3. 프린터로 출력된 명함
4. 세로쓰기형 명함
5. 프린랜서 명함
6. 점자명함
7. 일반명함

과를 이용해 종이의 양면에 점자를 새기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과 함께 대두된 전자명함서비스는 인터넷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는 이들의 필요에 의해서 제작된 서비스다. 이메일과 함께 첨부파일로 발송되며 국내에선 10여 개의 업체가 이미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전자명함은 종이 명함이 가지는 한계를 벗어나 명함에 표시되어 있는 이메일, 전화번호 등은 상대방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 인터넷 시대 대비해야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이미 명함·제책업계에 상당한 변화와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앞으로 겪게 될 충격은 이보다 더 할 수도 있다.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달은 이미 집에서 명함 제작이 가능한 단계까지 도달했으며 발빠른 업체는 이미 가정용 및 업무용 명함 제작 시스템을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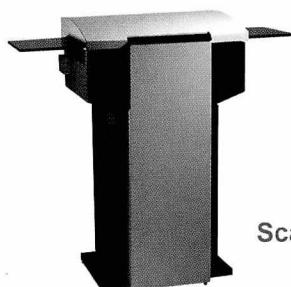
Adobe Photoshop, Quark Xpress, CorelDraw 등이 초보자라도 간단한 명함 제작은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는 것과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점은 가정용 및 업무용 명함 제작 시스템의 출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프린터,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등 명함 인쇄와 관련된 컴퓨터 주변기기의 발전과 종이의 발달도 명함 제작의 개인화 작업을 부추기는 대목이다.

인터넷 시대의 발전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인쇄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두려움으로 다

가서고 있다. 이미 인터넷을 경험했거나 경험한 직원들을 고용한 회사와의 경쟁에서 많이 낙후되고 있고 심지어 도산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의 흐름은 후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전 과거로 회귀 가능성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인터넷 시대에 이미 뒤쳐지고 있더라도 도전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명함 제작 시스템에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들도 전자명함 시대의 도래를 가정하고 전자명함 디자인을 제작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려해야 하며 이미지의 저작권 또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용우기자〉



컬러스캔 및 CopyDot 기능을 제공하는
전문가용 A3+ 평판스캐너

ScantMate F14

DotMate

ScanMate

필름 출력기 & 폴리에스터 CTP



DotMate 7500 CTP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17층 TEL. 2275-6611 FAX. 2275-6331 www.microqnix.com

 MICROQNIX